

특집논문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S. Korea's Developmental Urbanization and Reshaping of 'State-Nature' Relations:
Affective Governance of Urban Pigeons

김준수**

이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형성과 그 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최근 물질 자체에 대한 재주목과 비인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바라본다. 비인간 비둘기는 국가 영역의 메가 이벤트와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동시에 자원으로서 비인간 비둘기의 동원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연에 대한 통치성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 자체가 가진 물질적 특성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공간 재편 과정과 조응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발생시켰다. 비둘기의 이와 같은 물질적 울림은 궁극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감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결국 2009년 비둘기의 정책적 폐기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비둘기에 대한 정동감각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바이오필리아와 바이오포비아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에서 제외된 정치생태학적 접근과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써 비인간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비인간을 통한 인간의 재해석 가능성과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통해 국가와 도시 공간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인간과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비대

* 이 연구는 2017년 여름에 진행한 비인간지리 세미나를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거칠고, 부족한 원고에 생산적인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국가, 자연, 정치생태학의 연구관심을 남겨주신 황진태 박사님을 더불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김왕배 교수님, 원재연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gal102@naver.com)

칭적 관계성에 대한 환기는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함의하고 있다.

주요어: 비인간, 비둘기, 국가자연, 발전주의 도시화, 정동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최근 소장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물질주의적 재전환의 맥락에서 도시공간의 자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사회학과 지리학에서 조명되고 있는 ‘비인간적 접근(more-than-human approach)’에 대한 탐험으로, 이전에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뛰어넘어 자연물을 비롯한 ‘물(thing)’ 그 자체가 인간에게 끼치는 ‘정동적(affective)’ 감각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도시공간의 변화, 즉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과 자연물인 비둘기에 대한 상호인식의 변화 과정을 물질주의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영역이 자연물인 비둘기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고,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관계가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도시 내에서 제거되어야 할 행위자로 자리하게 된 비둘기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가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자연 재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전주의적 도시화와 이에 따른 국가와 자연의 관계 조정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도시 공간과 그 안에 위치한 자연의 영역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어 왔는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의 발전국가 즉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재편된 도시 공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함의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비둘기를 바라보고자 한다. 비둘기는 종(species)의 선택과 생물학적 특성, 즉 먼 곳에서도 집을 찾아 돌아오는 회귀성으로 인해 코스모폴리탄적(cosmopolitan)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 메가 이벤트의 개최와 발전주의적 도시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비둘기는 국가에 의해 선택되고 방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둘기는 점차 한국의 도시 공간 속에 자리를 잡아가며,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동적 감각¹⁾들을 부여해왔다. 비둘기에 대한 혹은 비둘기에 의한 정동적 감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80-1990년대를 거치며, 비둘기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정동적 감각을 부여하고 있는지, 당시의 비둘기를 둘러싼 다양한 신문기사와 논평 등을 통해 살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존의 ‘자연의 사회적 구성’ 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동원된 존재로서 비둘기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인간중심적인 자연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에는 그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물질주의적 울림을 형성한 비둘기의 생태변화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도시 비둘기에 대한 감응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둘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 감응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결국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포착하는 것은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이들이 도시 공간과 ‘인간의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도시의 위생담론과 결합된 형태로, 물질주의적 재전환의 관점에서 비둘기가

1) 정동(affection) 개념은 일종의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지각의 경험과는 다르게 인지적 차원 바깥에서 사유하고 느끼는 것이다(이토 마모루, 2016). 정동으로 명명된 개념은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질적으로 정돈되지 않았으며, 물질적, 신체적 혼적으로 상을 그린 관념으로 정의된다(방희경·박혜영,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동적 감각은 의식적 차원의 인식을 넘어서 변화하고, 유동하는 물질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

표상하게 된 이미지 — AI의 전염에 대한 공포감, 비둘기 배설물, 더러움, 전염의 대상 — 들로 비둘기의 모습은 재현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둘기는 2009년 국가에 의해 유해동물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인 폐기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폐기를 통해 비둘기는 개체 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절의 과정을 경험하고, 도시 공간에서 그저 사라져야 할 폐기된 행위자로 잔여하게 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초반부에 한국의 발전주의적 도시화와 이에 따른 자연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살펴보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국가의 동원 대상으로 자리한 비둘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동적 감각을 통해 비둘기의 문화적, 물질적 경관의 재구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인간이 도시공간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물인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구성론을 넘어서, 이들의 물질적 규정과 감응 통치성의 작동을 바라봄으로써 국가와 자연의 관계 재조정 프로젝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국가자연의 탄생: 발전주의적 도시공간과 자연에 대한 조정

본론에서는 먼저 한국의 발전주의적 도시화와 자연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생태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자연의 사회적 구성논의의 이론적 지점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의 국가와 비둘기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비둘기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감응이 어떤 지점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국가가 동원한 전략들은 무엇이었는지 바라본다. 이후에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물질주의적 재전환, 즉 비둘기의 역습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주로, 건조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훼손, 더러움을 비롯해 최근 도시에서의 AI전염에 대한 공포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들을 바라본다. 이와 같은 감응의 변화는 결국 국가의 자연에 대한 전략 변화로 이어져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류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으로 폐기된다.

한국의 발전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층위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왔다(윤상우, 2006; 조희연, 2002; 왕혜숙·김준수, 2015). 특히 발전국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영역처럼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맥락성에 부합하는 공간론에 대한 환기를 통해 발전주의적 도시 공간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완료된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능했다(Brenner and Schmid, 2011; Merrifield, 2013; Schmid, 2014). 도시화 과정을 마치 종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관점은 기존의 20세기 도시 연구들과 구분되는 21세기의 도시 연구들이 천착해야 할 ‘도시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행성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도시화의 사회-물질적 건조 환경(sociomaterial infrastructure) 등을 통해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인식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Brenner, 2013). 이는 기존의 도시를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공간으로서 광범위하고, 국민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도시직물(urban fabric)’을 새로운 분석 단위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이와 같은 추세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전략 차원에서 르페브르 이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Kipfer and Goonewardena, 2014).

또한, 새로운 도시정치생태학에 대한 조명은 기존의 도시화 과정을 ‘사회적 전환’의 과정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서 ‘사회자연적 과정’으로서 도시화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Angelo and Wachsmuth, 2015).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농촌/도시, 사회/자연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폐기하고,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행성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화 과정과

사회자연의 신진대사 과정(metabolic process)에 주목하면서 물질적·사회적 도시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유동하는 공간, 끝나지 않은 도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도시 공간 속에 다양한 어셈블리지(assemblage)에 대한 논의는 특히 도시 공간의 정치생태학적 논의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²⁾. 최병두(2010) 등의 연구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신자유주의화된 자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외에도 장덕수, 황진태(2017) 등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구성에 대해, 이상현(2001), 진종현(2009) 등은 국가가 표상하는 자연, 즉 민족주의적 자연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한국의 개발주의 토건국가론과 생태민주주의에 천착한 홍성태(2005)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자연의 사회적 구성 담론 속에서 특히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맥락 속에서 국가와 자연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은 또다시 국가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형성된 자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덫에 빠져 있다. 즉, 국가를 하나의 존재론적 인식 속에 놓고, 다중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치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정치’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자연물의 물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

2) 들뢰즈와 가타리 등 불어권 학자들의 앙상블라주(assemblage), 아장스망(agencement) 등과 같은 용어의 영어 번역인 어셈블리지(assemblage)는 관계나 층화, 배치 등을 의미하기도 하며, 도시 연구에 와서는 관계, 사물에 대한 접근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McFarlane, 2011). 하지만 이 연구에서 차용되는 어셈블리지의 개념은 보다 정치생태학적 용어로, 도시의 물질대사과정(metabolic process) 속에서 형성된 비인간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그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로 Swyngedouw(2011) 등을 참조할 것.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자연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도시적 스케일에서 비둘기의 사회-물질적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은 도시정치생태학적 접근과 조응한다. 그러나 비둘기의 정치생태학적 위상과 국가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케일에서의 분석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한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적 발전 전략 속에서 자연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국가-도시 스케일 모두에 작동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이 국가 주도의 도시 공간 재편을 통해 이뤄져왔기에 분석적으로 도시와 국가를 마치 하나의 동일한 지점으로 위치시켜놓는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이 강력한 국가주도의 도시자연 생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국가-자연’, ‘도시-자연’을 분석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국가와 비둘기의 관계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를 국가-자연의 형성과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1990년대 이후 도시 스케일에서 어떤 관계변화가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자연’의 관계 형성을 논의한 정치생태학자 마크 화이트헤드(Mark Whitehead)의 논의 틀을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 조정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이트헤드는 국가자연과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한다. 화이트헤드는 라투르의 논의 속에서 국가를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생태학적 네트워크(socio-ecological network)’ 혹은 ‘틀짓기 장치(framing device)’로 바라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Whitehead et al., 2007: 52~53). 즉, 국가는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집중화(Centralization)”, “영역화(territorialization)”의 공간적 전략들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를 하나의 틀 짓기 장치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한국 발전국가의 자연에 대한 조정 과정의 관계성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자연에 대한 영역화 과정을 단순한 자연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가의 자연에 대한 영역화 과정 속에 관련된 사회(인간)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영역적 시도들과 밀접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ack, 1986: 32).

국가의 자연에 대한 통치성의 작동은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통해 접근가능하다. 특히 에릭 다리어(Eric Darier, 1996)를 비롯해 푸코의 일상생활 통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연에 대한 일상 통치성의 작동을 설명한 논의들은 보다 한국의 발전주의 자연의 맥락과 부합하는 측면을 보인다. 특히 이들의 국가-자연의 논의는 국가와 사회가 자연을 향해 행사하는 권력과 지식의 작동에 주목한다(Goldman, 2004: 168~169).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은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물질주의 재전환과 지식의 통치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동원과 폐기의 과정을 국가와 사회가 일상성의 통치기제, 특히 생명에 대한 정동적 감각의 통제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발전주의적 도시화와 자연물, 즉 비둘기에 대한 국가의 공간적, 일상적 통치성의 작동은 ‘국가자연물’로서 비둘기의 등장을 보여준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각종 국제 메가 이벤트의 개최와 크고 작은 행사들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비둘기를 국가 동원의 대상, ‘국가자연물(state-nature thing)’로 바라보게 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와 이를 통한 공간 전략, 즉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 도시 공간의 구조화 과정과 자연에 대한 전략들이 수행되는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에 대한 논의를 그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프로젝트와 축적전략의 측면에서

국가의 공간 논의를 불러온 닐 브레너(Neil Brenner)의 국가 공간론을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자연물의 등장을 바라보고자 한다. 닐 브레너는 그의 저서 『뉴 스테이트 스페이스(New State Space)』를 통해 국가 공간의 형성을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브레너는 국가 공간의 '재영토화'와 '국가 경계의 재조정', '국가 스케일의 조정' 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함을 강조한다(Brenner, 2004a: 71~72). 국가 공간의 재영토화는 기존의 국가 공간을 마치 주어진 것, 자기 완결적 구성(self-enclosed platform)으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국가 공간에 대한 전략과 다중적 차원의 이해를 역사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³⁾ 다음으로, 국가 경계의 재조정 역시 국가 공간의 경계 혹은 국경에 대한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관계질서에 따라 언제든 가변적인 영역임을 강조한다.⁴⁾ 마지막으로 이처럼 국가 공간에 대해 '고정되지 않은 공간적 사고'는 국가 공간이 더 이상 고정된 형태의 구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정하게 한다.⁵⁾

이와 같이 국가공간에 대한 관계론적 사고는 국가공간의 자연물에 대한 상상 역시 관계론적 혹은 상관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준다. 즉, 고정되고 불변하는 국가 공간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관계론적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공간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국가와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 역시 단순히 고정된 형태의 일방향적 관계를 벗어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자연의 관계와 도시 경관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

3) 국가가 공간에 대해 행사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분석한 글들은 Kobrin(1998), Ruggie(1993), Newman (1999)를 참조할 것.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Newman and Paasi(1998), Linklater and MacMillan (1995), Sum and Perkmann(2002) 등을 참조할 것.

5) 이러한 논의와 국가공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Swyngedouw(1997), Smith (1995), Boyer and Hollingsworth(1997) 등을 참조할 것.

가 공간과 국가-자연의 관계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닌 지정학적, 생태학적, 사회학적 맥락에서 언제든지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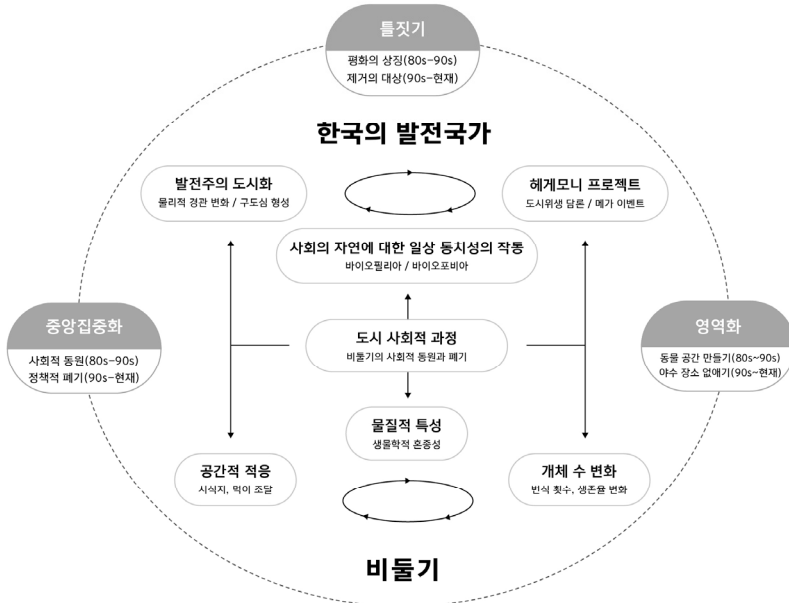
이런 관점을 통해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도시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⁶⁾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용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압축적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도시가 시-공간적으로 압축적인 도시 발달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투기적 도시화’가 이뤄졌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발전주의적 도시화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예외적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업단지, 아파트 단지, 수출자유지역 등의 공간 구획을 통해 도시 공간의 분절화, 구획화, 차별화된 국토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발전주의적 도시화는 원자력 발전 등의 ‘위험경관’을 창출해내고, 이러한 위험경험은 일상의 도시인의 삶에서 ‘위험의 일상화와 위험의 불균등 분포’를 창출해내고 있음을 지적한다(박배균, 2017). 이처럼 발전주의 도시화는 오늘날의 다양한 ‘도시 위기’를 창출해낸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과정은 한국의 사회적, 공간적 과정을 통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담론적 영역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황진태·박배균, 2013: 360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 속에서 국가와 자

6) 최근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는 일부 비판지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을 통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박배균·장세훈·김동완(2014), 이상현·김은혜·황진태·박배균(2017), 박배균·황진태(2017), 박배균·이승욱·조성찬(2017) 등을 참조할 것.

7) 황진태·박배균(2013)은 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 속에서 국가의 발전 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자연의 동원과정이 결코 갈등이나 긴장 없이 이뤄진 과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국가의 자연에 대한 영역화 과정 속에서 대두되는 담론적, 물질적 전략들에 대한 주목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그린벨트, 댐 등 다양한 국가-자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지적한다.

<그림 1> 한국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관계 분석틀



자료: Whitehead et al.(2007: 14)과 황진태·박배균(2013: 358)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측면에 대한 주목은 많은 부분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발전주의 도시화의 측면에서 비교적 빈영역으로 남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성을 환기시키며, 도시 공간의 물질적, 담론적 경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국가-자연의 관계 변화 과정을 비둘기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가자연물인 비둘기의 등장과 그 관계의 변화 과정을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가와 비둘기의 관계 분석 틀을 보면, 우선 국가영역의 자연에 대한 영역화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자연에 대한 포섭과정은 자연물이 가진 물질적 특성 혹은 생태학적 맥락성은 제거되고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으로 표상된다(Whitehead et al., 2007: 43).

이렇게 추상화된 자원으로서 비둘기는 메가 이벤트에 동원되어 평화를 상징하는 장식품으로 틀지어진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겠지만, 생태학적 특성이 제거된 비둘기는 도시 공간 전체에 사회적으로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도시 사회적 과정을 경험하고, 도시 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자연에 대한 사회의 정동적 감각이 생명애를 나타내는 바이오필리아의 형태로 등장한다.

결국 국가영역에서 바라보는 추상화된 자연물로서 비둘기의 생태학적 특성들은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 공간과 긴밀한 상응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즉, 도시에서의 인프라 확장과 신진대사 흐름 속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통해 비둘기는 도시 공간에서 번식 횟수와 생존율 증가의 생태학적 적응을 보이며 개체 수를 확장해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은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의 변화를 불러오게 한다. 즉, 도시의 위생과 질병 전염에 대한 공포 감인 바이오포비아라는 정동적 감각의 형성을 통해 도시 사회적으로 동원되고, 도시 속에서 인간과 공존이 장려되던 비둘기는 점차 인간의 도시 공간에서 살아갈 지위를 박탈당하기 시작한다. 궁극적으로 2009년 비둘기는 유해 조수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으로는 폐기의 대상이 되고, 공간적으로는 철거의 대상, 사회적으로는 기피와 제거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자연물의 형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과도 일맥하고 있는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다 물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정치생태학적 접근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비인간접근(More-than-human approach)’을 수용하며, 비둘기의 물질적, 생태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국가와의 관계성 변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비인간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비둘기 자체의 물질적 특성과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조용하게 되는 지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3. 물질주의 재전환과 감응의 통치: 비인간지리의 등장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은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인류세(Anthropocene)’의 등장으로 정의했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용어로, 인간에 의한 급격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지질학적, 생태학적 위기의 도래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다. 즉, 인간에 의한 지구 공간의 파괴와 생태환경의 훼손을 하나의 지구역사대로 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⁸⁾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오염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어왔다. 울리히 벡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생태학적 위기의 공간론적 논의 역시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⁹⁾ 이처럼 생태학적 위기 속에 최근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된 한계를 지적하며 ‘비인간(nonhuman)’에 대한 논의를 불러내고 있다(Whatmore, 2013, 2006; Choi, 2016; Lorimer, 2007; Barua, 2014; Ginn, 2014; Hobson, 2007; Buller, 2008; Bear and Eden, 2011).

비인간지리(more-than-human geographies)는 동물, 무생물, 사물 등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외의 물질에 대한 주목은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의 지나치게 담론 위주의 분석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즉, 사회학과 지리학, 인류학, 정치학 등의 인간중심적인 담론 분석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중심의 사회과학연구를 넘어서 다양한 물질세계에 대한

8) 인류세의 등장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지성·남옥현·임현수(2016)를 참조.

9) 특히 독일의 지리학자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üller-Mahn)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론적 위험과 접맥한 위험경관(riskscape)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데틀레프 뮐러만·황진태, 2014). 또한,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불균등한 위험의 분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상현(2016), 홍성태(2003), 한상진(1998) 등이 있다.

주목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주목이 가능해진다(Whatmore, 2006). 비인간지리학자인 사라 왓모어(Sarah Whatmore)는 물질주의 재전환을 위한 네 가지 연구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¹⁰⁾ 그녀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은 담론에서 실천(practice)으로, 의미에서 정동(affect)으로, 인간에서 비인간(more than human)으로, 정체성의 정치에서 지식의 정치(politics of knowledge)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Whatmore, 2006: 604~607).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비인간과 인간, 특히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을 동물인 비둘기에 한정하고 바라보고자 한다.¹¹⁾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 공간을 하나의 고정된 실제로 상정한다면 간과될 수밖에 없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어셈블리지를 통해 이들의 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간들의 정동적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비인간지리 연구자들은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 Theory)’을 도입하고 있다. 비재현 이론은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를 통해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비재현 이론을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으로 도입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들을 제시했다. 먼저 비재현 이론은 일

10) Whatmore는 그녀의 글 “Materialist Returns”를 통해 왜 단순히 ‘전환(turn)’이 아니라 재전환(return)이라고 표현했는지 밝히고 있는데, 그녀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접근법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시카고학파가 시도했던 물질주의적 분석의 재시도 라는 점에서 굳이 재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이 지나치게 담론, 문화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했다.

11) 비인간 지리를 상정하는 데 쉽게 동물 지리학과 비슷한 것 혹은 같은 영역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인간 지리는 동물을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동물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에 보다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 지리학과는 구분될 수 있다.

상적 실천을 강조하고, 특정장소에서 타자와 자신을 향한 인간 행동의 형상화에 주목한다. 둘째, 주체가 아닌 주체화의 실천을 통해, 정체되고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다음으로, 대상을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비재현 이론은 존재의 기술(technologies of being)을 강조하는데, 이는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소박한 관계(minimal re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Thrift, 1997: 126~133). 즉, 비재현 이론은 기존의 공간 연구에서 시각 중심성의 탈피와 신체로써의 경험, 고정된 것이 아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감각 등과 같은 기질들이 ‘재현(representation)’을 통해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객체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접근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여기에서는 비인간 비둘기의 ‘정동적 감각(affective emotion)’의 변화 과정과 이를 통한 국가의 감응의 통치과정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생명에 대한 감정”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와 바이오포비아(biophobia)라는 개념을 통해 그 정동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¹²⁾. 생명에 대해 가지는 교감과 사랑 등을 나타내는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정동적 감각은 한국 발전국가의 비둘기 동원에 국가적, 사회적으로 동원된 감각이다.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감각은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의 자연”, “평화와 교류의 상징”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동의 감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바이오포비아(biophobia), 즉 생명에 대한 공포감으로 변화하고, 이 과정은 비둘기 자체의 물질주의적 변화와 사회적 정동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12) 바이오필리아(biophilia)와 바이오포비아(biophobia)의 개념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에 의해 정식화됐다. 그가 주장한 생명에 대한 감정인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뜻하며, 이는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생명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을 뜻하는 바이오포비아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각인되는 감정임을 밝힌다(Ulrich, 1993).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동원된 비둘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고, 어떤 동원의 과정들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폐기의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정동의 변화 과정과 국가 영역의 감응의 통치성 작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각화된 자료, 재현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비재현 이론이 강조하는 비시각적 감각, 실천과 수행을 통한 국가영역의 감응 통치 전략의 포착은 이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간성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 집단적 정동성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여전히 비재현적 접근법이 가지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함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물질적, 담론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소박한 관계성(minimal relation)’을 통해 국가와 비둘기가 도시 공간 속에서 맺어온 관계성이 어떤 도시 사회적 과정을 통해 변화해왔는지 바라본다.

특히 이와 같은 비인간과 인간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는 필로(Philo)와 윌버트(Wilbert)의 『동물 공간, 야수 장소(Animal spaces, Beastly places)』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재조정의 과정을 바라봄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공간의 영역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마땅히’ 동물, 자연물 등이 있어야 하는 공간을 인간 중심의 분류와 “과학적 지식”의 동원을 통해 영역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Philo and Wilbert, 2000: 22~24). 만약 그 자연물이 인간의 편의에 의해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그 자연물은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닌 예측불가능한 위협을 가하는 ‘야수(beast)’가 되어 ‘제거와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도시 공간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논의하는 공간적 범주가 특정한 공간적 영역에서의 “동물의 탈출”에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동물의 공간(animal spaces)과 야수의 장소(beastly places)가 인간 중심적 영역 설정과정에서 비단 특정한 공간적 경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의 경우 도시 공간 전체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비둘기의 동원과 비둘기의 역습, 비둘기의 폐기의 과정을 시기 구분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시기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로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 동안 진행된 다양한 국제적 메가 이벤트(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들을 기준으로, 비둘기의 국가적, 사회적 동원의 과정을 바라본다. 이를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동원된 비인간 행위자 비둘기는 누구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동원됐고, 그 사이에 드러난 이들의 물질적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후 도시 공간의 물리적 경관의 확산과 도시 공간의 폐기물, 틈새 공간(niche spaces)의 증가와 도시 인프라의 확산이 비둘기들의 개체 수와 생태계에 어떤 물질적 변화를 불러왔는지, 조류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에 대한 바이오필리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상상된 위협은 무엇이었고, 이를 통해 변화한 ‘국가-자연’의 관계가 도시공간을 매개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4. 발전주의 비인간: 비둘기와 정동의 변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색비둘기는 ‘집비둘기(학명: *Columba livia*)’의 한 종류로, 대개는 바위비둘기(Rock Dove)로도 불린다. 이들은 3~6년 정도의 수명과 잡식성 먹이를 먹으며 살아간다. 이 종은 약 280여 종의

〈그림 2〉 환경부 주관 양비둘기 보호 사업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종의 교합을 통해 이뤄진 ‘구성되고, 혼종된 동물’이다. 이와 같이 혼종적인 비인간 비둘기는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서 90여 회에 걸쳐 방사가 이뤄졌다(《한겨레》, 2013.9.1).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토종 비둘기”가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양비둘기(학명: *Columba rupestris*)’로 ‘낭비둘기’ 혹은 ‘굴비둘기’로도 불린다. 이들은 현재 도심의 집비둘기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멸종위기 동물로 관리되고 있다. 집비둘기와 양비둘기는 생김새나 습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환경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양비둘기의 보전 및 증식,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둘기라는 비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혼종적(hybrid)인 상태로 한국의 도시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영역에서 비인간 비둘기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은 인간 중심의 “과학적 지식”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혼종적인 비둘기의 습속과는 무관하게 종을 구분하여, 집비둘기는 폐기의 대상으로, 양비둘기는 보존의 대상으로

비제비둘기 종에 속하지만, 한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비둘기들은 야생종이 아니며, 개량된 품종이다(김남일 외, 2013: 336~337). 또한, 집비둘기는 귀소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질로 인해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용 비둘기와의 종교합을 통해 각종 레저 활동 및 관상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둘기들은 학명으로 엄밀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며, 바위비둘기와 경주용 비둘기, 양비

상정하여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종-외래종’의 구분을 통해 보호해야할 자연물과 제거해야할 자연물을 이분화하여 바라보는 것과 같이 국가의 자연에 대한 재조정 과정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비인간 비둘기가 주는 ‘물질주의적 울림’에서 기인했다.

도심의 집비둘기 생태에 대한 논의는 생물학과 조류생태학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생물학과 조류생태학에서 논의되는 비둘기는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이후 도심 비둘기 개체 수의 증가와 도심 인프라의 증가, 도심 쓰레기의 증가 등과 같은 도시의 신진대사(urban metabolism)의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다. 즉, 집비둘기의 서식지와 먹이 등에 대한 제공 가능성이 도심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Meffert, 2017; Gierlinger, 2015; Melles, Glenn and Martin, 2003). 도심에 노출된 쓰레기와 건조 환경의 사이 공간은 비둘기들의 서식지와 번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도심 비둘기는 1년에 최대 6회까지 번식활동이 가능해진다. 끊임없는 도시화 과정을 통해 도시의 신진대사 활동과 비둘기의 번식과 개체 수의 관계는 도심 비둘기의 생존가능성과 보다 많은 번식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Symes, Roller, Howes, Lockwood and Rensburg, 2017).

이처럼 조류생태학과 생물학적 논의 속에서 이뤄지는 비둘기의 생물학적 생태계 변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물리적 경관의 변화와 도시의 신진대사의 흐름과 일맥하고 있다. 먼저 건조 환경의 증가 측면에서 강남개발과 한강 교각의 증가, 신도시 지역의 확산과 구도심 형성의 과정은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비둘기는 4층에서 9층 사이의 높이와 삼면이 막힌 공간을 서식지로 선호하고, 구도심지역에서 보다 많은 개체 수가 늘어나는 사실이 동물행동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Sacchi, Gentili, Razzetti and Barbieri, 2002). 그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건축물, 수도 시설, 배출된

쓰레기 등이 비둘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 동물에게도 서식지와 식량 공급원으로 작동하고 있다(Adler and Tanner, 2013). 한국에서도 비둘기의 생태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생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남동하와 이두표의 연구는 서울 비둘기와 지방 도시의 비둘기의 체내 납과 카드뮴 축적에서 서울 비둘기에 더 많은 중금속 축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둘기와 도시 공간의 관계는 그 개체 수의 증가와 비둘기 개체의 오염도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나타난다(Nam and Lee, 2006).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속에서 급속한 물리경관의 형성과 도시 신진대사의 작동, 각종 이벤트에서의 비둘기 동원 과정은 비둘기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통한 정동감각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즉, 오늘날 ‘외래종’, ‘유해조류’로 분류되어 퇴치의 대상이 된 집비둘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발전주의 도시화와 메가 이벤트 전략에 동원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정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생명에 대한 사랑”, 삭막한 도시에서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바이오필리아로 표상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도시 공간 속에서 그 개체 수가 증가하고, 각종 질병과 오염의 상징으로, 도시의 ‘생태적 재앙과 공포’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이는 곧 생명에 대한 공포감인 ‘바이오포비아’의 대상으로 비둘기의 정동적 감각은 변화한다. 일련의 정동적 감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자연이 맺는 관계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 1) 1980~1990 국가와 비둘기: 사회적 동원과 동물을 위한 공간 (animal spaces) 만들기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둘기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동물로, 그 종의 다양한 교합을 통해 형성된 코스모폴리탄적 성격(Cosmopolitan)

을 지닌 존재이다. 사회적으로도 비둘기는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각종 메가 이벤트에 동원되고, 평화의 상징으로 국가 간, 단체 간, 개인 간 교류와 화합의 의미에서 선물로써 증여되는 일이 상당히 흔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동원된 비둘기 중 일부는 후에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개최식에 사용될 목적으로 중국에 기증된 바 있다(《경향신문》, 1988.9.21). 이 외에도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 평화의 상징이자 교류의 상징으로 이용된 비둘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코스모폴리탄적 성질이 강한 동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 비둘기를 통해 표상되는 ‘도시의 자연’을 사회적으로 동원해내는 방식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둘기를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비둘기를 사회적 동원의 대상으로, 또 도시 공간 속에서 “자연”과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하는 비인간의 표상을 바라본다.

도시 공간의 초국적 동물인 비둘기는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유희활동으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도 유럽, 미국, 터키, 중동국가 등지에서는 비둘기 경주대회가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¹³⁾. 한국 역시 1970년대부터 비둘기 경주대회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친근하고 익숙한’ 동물인 비둘기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에는 “한국레이싱비둘기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¹⁴⁾. 이처럼 비둘기 레이싱 대회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자연”에 대한 표상으로 활용됐다.

13) 비둘기 경주의 사회과학적 분석에 대한 글은 C. Jerolmack(2013) 참조.

14) 한국레이싱비둘기협회는 1970년 결성되어,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972년 천안에서 제주도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귀환하는 레이싱 대회를 해왔으며, 현재도 1년에 1~2차례 레이싱 대회를 하고 있으며, 1979년 아시아 연맹, 1979년 국제연맹 회원국에 가입했다. 현재는 ‘애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ttp://www.racingpigeon.kr/>).

금년에는 처음으로 제주도 경기를 갖게 되었다. 제주도 레이스는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최장거리로 비둘기들이 잘 날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 우리가족들은 푸른 하늘을 보며 만세를 불렀다. ‘우리 비둘기 최고다!’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 비둘기 경기의 취미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을 말로써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관찰력, 인내심을 길러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사랑과 낭만을 맛볼 수 있는 건전한 취미라 많은 사람에게 널리 보급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경향신문》, 1975.6.20(강조는 필자)].

…… 비둘기를 키운 뒤로 일찍 귀가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동물애호정신, 나아가 자연보호의 산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성격이 이그러져 탈선을 일삼는 중·고교생에게 레이스비둘기를 사다주었더니 일찍 집에 돌아와 비둘기를 돌보는 등 정서순화효과를 거둔 회원도 있다 ……(《매일경제》, 1978.11.4).

…… 올림픽 위한 저변 확대 86아시아 경기대회와 88올림픽 경기 개막식에 날릴 비둘기는 8천~1만 마리, 그러나 국내에는 약 3천 마리 정도밖에 없어 저변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생들이 특별활동 시간에 비둘기 사육시간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동아일보》, 1983.4.15(강조는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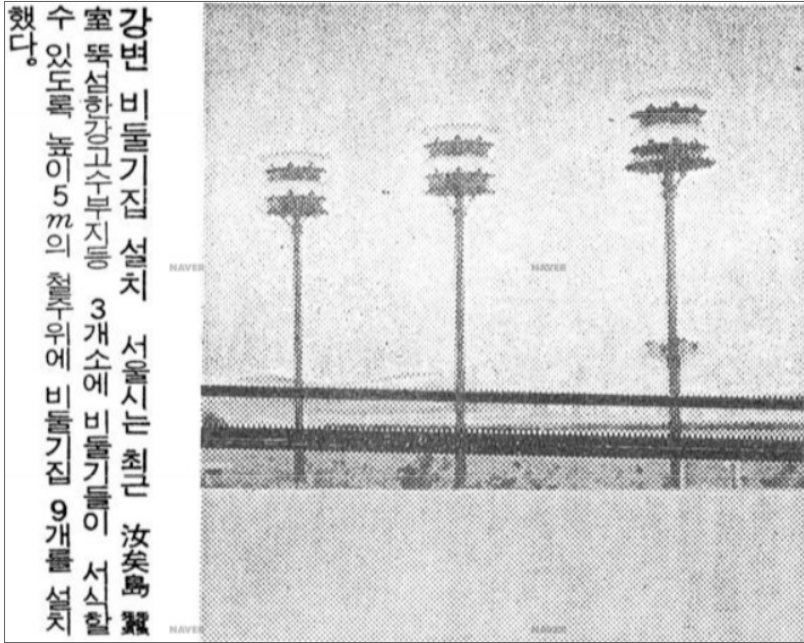
88서울 올림픽 대회기간 중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들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 역사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국내 레이스 비둘기의 저변 확대에 큰 의의가 있다. …… 대만에서 40마리(5월 중 백 마리 추가) 영국에서 50마리가 도착했으며 일본에서도 70마리가 참가한다. 한국에서는 1백 마리의 비둘기가 출전 예정인데 모두 10개국 6백 마리가 참가할 전망이다 ……(《매일경제》, 1988.5.9).

이처럼 비둘기 경주대회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은 ‘자연’에 대한 낭만과 사랑, 가족의 화목 등과 같은 이미지와 함께 동원됐다. 이와 같은 비인간에 대한 동원과 사랑, 낭만, 가족 등과 같은 용어의 활용은 특히 국제적 친선, 올림픽에서의 활용 등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으로 동원됐다. 비둘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친숙한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 ‘보호’, ‘생명’ 등과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 등을 이유로, ‘비둘기 집지어주기 운동’, ‘학교에서 비둘기 기르기’, ‘비둘기 사육 및 기증’ 등과 같은 형태의 도시 사회적 움직임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비둘기는 사회적으로 친숙하고, 국가 행사에 “기꺼이 동원될 동물”로 인식되어 ‘비둘기 모이주기 운동’ 등이 확산되어 갔다. 이와 같은 비둘기 모이주기 운동과 ‘비둘기 집지어주기’ 운동 역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는 특히 관 주도형 운동으로, 한강 시민공원이나 구청, 공원 등지에 비둘기 집을 지어주고, 심지어는 비둘기 알 등을 함께 입양해서 키우는 일 등이 비밀비재하게 나타났다.

서울종로구원남동 주민들의 하루일과는 요즘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창경원의 동물원이 지난 84년 과천으로 옮겨 간 뒤 이 동네에서 살던 비둘기가 빨빨이 흩어졌다가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동물원이 이사 가기 전 까지만 해도 이 동네엔 2천여 마리의 비둘기가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과자, 빵 부스러기로 양식 걱정이 살 수 있었다. …… 마침내 애처로운 평화의 사자들 사이의 안타까운 소식에 주변 가게 주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돌아온 비둘기를 살리자” …… 떠났던 비둘기도 속속 귀향, 3백 마리 넘게 됐다.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다시는 비둘기가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해 이 삭막한 도시에서 가장 평화로운 거리를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득 담겨있다. [《경향신문》, 1986.2.13(강조는 필자)].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비둘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비둘기 집을 설

〈그림 3〉 서울시가 설치한 한강변 비둘기 집



자료: 《동아일보》, 1988년 8월 3일.

치기로 했다. …… 비둘기는 서울대공원에서 새끼 30마리를 인수, 입주시 키기로 했다(《경향신문》, 1988.6.4).

운동장을 유유히 거니는 비둘기들, 학생들이 모이를 뿌려주면 꺾꺾 꾸룩룩 거리며 모여든다. 5백 마리의 비둘기가 활개 치는 서울경희중학교의 교정은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이들을 돌보는 1천 5백 50명의 학생들도 맑고 정답다. …… 학생들은 비둘기를 기르면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아니라 차공을 시원스럽게 선회하는 비둘기를 보면서 해맑은 이상을 키워보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72.12.2).

이처럼 비둘기는 사회적으로 친숙하고,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 이오필리아는 국가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둘기를 기르고, 분양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자연에 대한 조정은 당시에 열릴 각종 메가 이벤트 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비롯해 심지어는 각종 아파트 기공식,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원 행사 등 크고 작은 도심 이벤트 속에서 하나의 관례 행사처럼 비둘기 날리기가 이용되어 왔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사이에 있었던 “비둘기 종의 교체”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에 동원된 비둘기는 앞서 살펴본 집비둘기들로, 외모는 회색빛에 검은 줄이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1986년 아시안 게임에서 날린 3300여 마리의 집비둘기의 회색 색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집비둘기의 색감이 “시각적 효과가 적다.”라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8년 올림픽에서는 “백색비둘기”만 날리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도심에서 목격하는 비둘기들 중에 흰색의 비둘기가 종종 보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다시 말해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사이에 있었던 비둘기 종의 교체는 회색 집비둘기(Rock Dove)에서 백색 비둘기(White King Pigeon)로의 교체였다¹⁵⁾. 이렇게 각종 사회적 동원을 통해 다시 만들어진 백색 비둘기는 이후 1990년 북경 아시아 게임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각각 200마리씩 기증됐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국가에 의해

15) 이와 같은 비둘기 색감에 대한 지적으로, 1986년 아시안 게임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흰색비둘기를 동원하기 위한 각종 전략들이 모색됐다. 최초의 흰 비둘기는 서울 올림픽을 위해 수입됐고, 서울시와 대한체육회가 각각 1200마리씩 확보, 경찰대학교가 100쌍, 서울대공원이 500마리, 어린이대공원이 300마리, 일반 사육사가 400마리 기증, 일본에서 300마리 수입 등을 통해 그 개체 수를 확보했다. <경향신문>. 1988.8.2. “흰 비둘기 88개막 때 첫선”.

규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자원으로 동원하기 위해 비둘기의 개체 수의 확보가 시급했던 국가영역은 비둘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사회적 동원의 과정들을 수행했다. 이처럼 국가 영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메가이벤트)와 자연에 대한 일상적 통치성의 작동(자연에 대한 낭만적 사유와 비둘기에 대한 바이오필리아)들이 영역화와 중앙 집중화 과정을 통해 국가 영역의 내부로 자연물인 비둘기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동원된 비인간과 그 ‘종의 교체’의 과정을 통해 국가와 자연의 관계성이 메가 이벤트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틀지어진 ‘자원으로서의 비둘기’ 동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국가자연물인 비둘기의 동원과정은 국가영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자연에 대한 사회적 통치성의 작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비둘기가 일종의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정서에 도움이 되며”, “사랑과 낭만의 가족주의”와 함께 담론적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바이오필리아의 형성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국가와 자연 그리고 도시 사회적 동원의 과정 속에서 그 물질적 특성이 가려진 비둘기는 그 자체로 일종의 ‘야생’ 혹은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비둘기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 바이오필리아의 형성은 사회적으로 큰 저항 없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즉, 국가의 자연물에 대한 관계 형성은 다양한 범위에서 영역화를 통해 나타났고,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그 경관은 국가의 의도대로 형성되어 갔다.

국가와 자연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단순히 자연물을 국가의 동원 대상이나 쉽게 조정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존의 국가-자연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연론’의 담론에 머물러 있는 논의가 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자연 조정이 불러온 결과에 주목해서 물질주의적 결과와 이에 따른 인간들의 바이오필리아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는 비둘기에 대한 자연과 평화, 화목의 감각적 심상의 변화가 그 물질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비둘기 개체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도시 위생, 경관 훼손, 질병에 대한 우려 등의 확산을 통해 일어난다.

2) 1990~현재: 정책적 폐기와 야수의 장소(Beastly Places) 없애기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비둘기에 대한 바이오필리아의 정동에서 바이오포비아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도시의 비둘기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동원은 도시 공간 내의 비둘기 개체 수의 증가로 이어졌고, 비둘기 자체의 오염과 이를 통한 전염성 병원균 등의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공포로 이어진다. 특히 질병과 오염, 더러움으로의 표상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도시 공간 내에서 ‘비둘기 죽이기’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감응을 바이오포비아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비둘기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국가-사회적 과정들은 각종 행사에 사용할 자원으로 비둘기를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도시 공간에 급격히 확산된 비둘기는 그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른다.¹⁶⁾ 또한 비교적 최근에 도심 비둘기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한 지점은 철새들에 의해 전파된 AI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다. 전국

16) 서울시는 도심 야생동물 등에 대한 환경통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울 도심의 비둘기 개체 수는 3만~5만 마리 정도로 상정하지만, 대한조류학회 등이 추산하는 비둘기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 이상, 서울시만 5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매년 2회 집단 서식지 조사를 실시하지만 개체 수 조사 등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으로 가금류 농장에 대한 AI 감염 사례와 중국에서 인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를 통한 인체 감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2015~2017년 사이는 도심 내 동물들에 대한 강력한 의심과 불안이 형성된 시기이다. 특히 2016년 겨울 포천의 길고양이가 AI에 감염 확진을 받고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도심 내 비둘기를 통한 AI 감염 공포는 극에 달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감응의 변화 이전에 1990년대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에 대한 인식’과 ‘생명에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다양한 기사와 칼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경향신문》, 1992.7.24). 비둘기에 대한 감응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점차 바이오필리아에서 바이오포비아로 변하게 된다. 이런 정동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문화재 훼손과 생활환경악화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또한, 1990년대에서부터 해외에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글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다(《동아일보》, 1993.1.19).

먼저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비둘기에 대한 테러’는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주로 모이에 독극물을 넣어서 주는 방식으로, 이 때문에 도심에서 비둘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 공원주변에서 서식하던 야생 비둘기 60여 마리가 입에 거품을 내 문채 비틀거리다가 무더기로 죽어간 뒤였다. …… 비둘기들이 공원벤치를 더럽히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라는 짐작인 모양이지 …… 공해에 찌든 도심 한복판에 깨끗하게 터를 잡은채 평온과 사랑을 전해주던 비둘기들을 왜 죽이려하는지 모르겠다 ……(《경향신문》, 1996.4.28).

서울 시내 공원등지에서 서식하는 비둘기 등이 누군가 뿌린 독극물이 든 모이를 먹고 폐죽음을 당하는 일이 잇달아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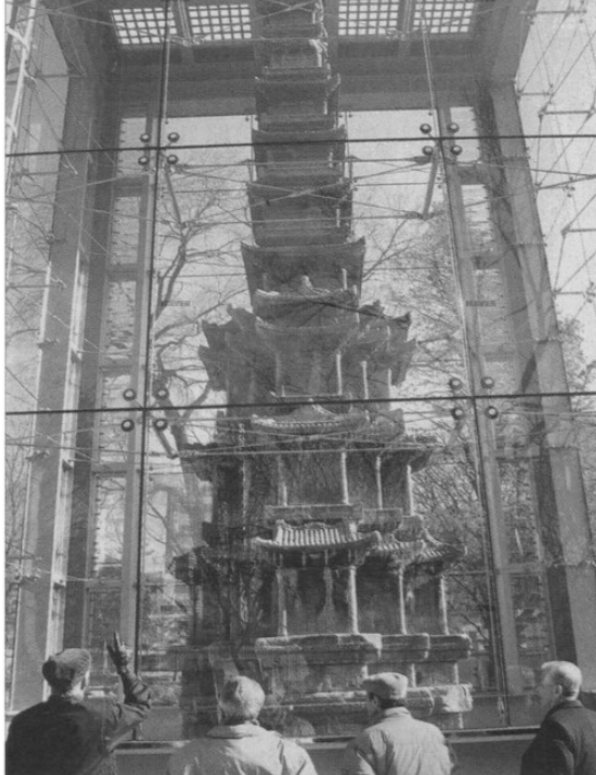
다.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경희궁에서 비둘기 50여 마리가 독극물이 든 국수를 먹고 떼죽음을 당했고, 그 후에도 며칠 동안 5~10마리씩 거품을 물고 죽었다 ……(《동아일보》, 1996.9.4).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과 인터컨티넨탈호텔 인근의 비둘기들이 연 3일째 떼죽음 당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 비둘기들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보아 독극물이 든 먹이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둘기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고의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경향신문》, 1999.4.6).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도심 내 비둘기의 급격한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지저분함, 오염, 더러움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둘기를 죽이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점차 비둘기에 대한 ‘바이오포비아(biophobia)’로 변화해 가는데 그 지점은 문화제에 대한 훼손, 전염병에 대한 공포 등으로 시작된다. 문화제 훼손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탑’ 문제이다. 원각사탑은 탑골공원 내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인해 극심한 부식과 훼손이 진행됐다. 특히 국보 제 2호인 원각사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막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비둘기 배설물 문제가 도심 곳곳에 건조 환경에 대한 부식, 자동차 부식, 행인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감응은 변화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체 수 증가와 배설물을 통한 오염, 각종 질병의 매개체로 비둘기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둘기에 대한 정동의 변화는 실질적인 병원균의 전파와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조류독감 AI의 전파 매개체로 비둘기가 인식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부는 2009년 집비둘기에 대한 연구용역 조

〈그림 4〉 원각사탑 비둘기 배설물 부식 방지 공사



정지운기자

원각사탑 ‘비둘기 막아라’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둘러싼 투명유리 보호막이 최근 등장했다. 보호막 설치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석탑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자료: 《경향신문》, 1999년 12월 13일.

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한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집비둘기에 대한 연구조사는 그동안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유정철, 2009).

환경부의 비둘기에 대한 연구 용역 조사는 비둘기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가능성’을 건조 환경에 대한 훼손과 전염병의 매개체로 인한 질병 피해로 정리하고 있다(유정철, 2009: 67~121). 특히 비둘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다시 바이러스 5종, 세균류 9종, 균류 44종, 원생동물류 1종, 체외기생충 17종으로 분류해놓았다. 이 중 1941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에서 비둘기를 통해 실제로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총 176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균류에 속하는 ‘클라미도필라 프시타시(*Chlamydothila psittaci*)’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유정철, 2009: 120).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발병이 된 이력이 있는 비둘기 감염 질병은 모두 7개로 살모넬라증, 클라미디아증, 아스페르질루스증, 칸디다증, 효모균증, 톡소플라스마증, 히스토플라즈마증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유정철, 2009: 121). 환경부의 집비둘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에 대한 관리와 퇴치, 퇴치사례, 생태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됐다. 즉, 환경부의 집비둘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집비둘기를 국가영역에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퇴치’를 목표로 수행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영역의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감응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에 이르는 비둘기에 대한 정동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비둘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처리와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시에서 동물구조 활동을 하는 활동가, 비둘기 등의 유해동물, 해충을 처리하는 업체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한 감응의 사회적 대응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¹⁷⁾

17) 인터뷰는 총 5명과 진행했으며, 이 중 이 연구에 3명의 자료가 사용됐다. 인터뷰는 2017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각각 1~2시간씩 진행했으며, 비둘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비둘기에 대해 접하는 행정적, 직업적, 감정적 절차와 태도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인터뷰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남자, 공무원, 40대, 경기도 환경담당 부서 종사. B: 남자, 해충퇴치업체, 40대, 해충처리업체 직원. C: 남자, 활동가, 20

…… 어쨌든 유해 조수 비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할 할 것도 사실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해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공기총을 이용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도심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포획은 잘 이뤄지지 않죠. …… 보통은 민원 발생 지역에 현수막, 그 먹이를 주지 마시오 현수막을 설치해요. 설치를 하고 지난번부터는 기피제를 시도하죠. …… 사실 쫓아내는 수준도 아니죠. 애네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이를 줄이는 건데, 먹이가 줄면 비둘기들은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24시간 내내 우리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먹이 주는 것에 대한 처벌사항이 없어요. 외국에는 과태료처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먹이주지 말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근절은 안 되는 거예요. …… (A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와 같이 비둘기로 인한 도시 공간의 피해와 지저분함에 대한 거부감은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감응의 변화와 국가와의 관계 재조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집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영역의 법적 장치 마련이 함께 작동했다. 하지만 2009년 집비둘기의 정책적 폐기 이후에도 국가영역에서 집비둘기에 대한 직접적인 개체 수 조절이나 포획에 대한 실질적인 방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따라서 집비둘기에 대한 조치는 민원 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비둘기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의 변화는 국가의 공간적 전략의 변화를 통해서도 포착된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1980년대 메가 이벤트의 활용을 위해 한강변과 서울시청사 등지에 설치된 ‘비둘기 집’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국

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가영역의 비둘기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는 비둘기와 인간이 도시 공간 속에서 서로에게 수행하는 물질적 수행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기 보다는 도시 속에서 오염과 혐오감, 다시 말해 사회적인 인식된 바이오포비아의 정동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서식지, 먹이 공급처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둘기가 가진 외모, 인간에게 불려오는 ‘외관상의 혐오감’은 도시 공간에 부유하는 비둘기들에 대한 관계를 재고하게 한다.

비둘기 말씀하시니까 안타가운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버거워요 사실 유기되는 동물들 반려견이나 유기묘, 길고양이들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저희 쪽에 알려져서 들어는 애들만 해도 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비둘기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 같아요. 그래도 가끔 다친 비둘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디에 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는 게 아니면 비둘기를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단체에서도 직접 이렇게 개입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애들이죠. 그래도 너구리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로 들어오는 애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있어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상태 괜찮아지면 방생도 하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비둘기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구조되면 보내져서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고도 거의 없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치고

-
- 18) 2017년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10개의 비둘기 집을 7개로 줄였다. 하지만 서울시, 지자체 등에 의해 설치된 비둘기 집의 수와 그 규모는 여전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의 비둘기 집단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민원발생 건수와 피해유형, 먹이공급원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2016년 서울시의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는 총 264건의 민원발생과 배설물, 깃털에 의한 피해, 주거지 훼손, 시설물 부식, 보행불편, 혐오감과 악취 등을 그 주된 피해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334406?tr_code=open).

〈그림 5〉 민원 발생 지역에 설치된 비둘기 ‘근절’ 현수막



한 애들 보면 사람들한테 혐오감만 더 주고 그래서 더 천대받고 악순환 같은 거 그러는 거 같아요……(C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처럼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비대칭적인 동원에 의해 도시 공간에 자리하게 된 비인간 비둘기는 그것의 물질주의적 울림에 의해 점차 혐오감의 정동, 바이오포비아로 전환된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역시 새롭게 재조정되는데, 정책적으로는 유해조류로서 폐기의 과정을 경험하지만, 직접적인 조정의 과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영역에서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비둘기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비둘기에 대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조치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 이후의 국가와 비둘기의 관계 재조정엔 비둘기에 대한 물질주의적 정동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재조정은 도시 공간 내에서 인간과 비둘기가 일상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혐오의 정동성만 재확인하며, 비둘기가 “돌아갈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둘기의 ‘퇴치’과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인위적인 먹이를 얻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가정집에서 비둘기를 전문적으로 퇴치해주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조 환경에 대한 부식과 훼손

을 유발하는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등에 대한 청소와 이 공간, 즉 인간의 주거 공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장소에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둘기를 처리한다고 이야기한다.

…… 똑같이 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애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까 같은데 방식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비둘기 집 철거하러 나가보면 거의 다 가정집은 에어컨설치 하는 실외기에 집지어놓고 알을 낳고 건물 상가나 다리는 외벽이나 틈이 있는 곳에 해요. 거기가 애네들한테 좋잖아요. 높고, 따뜻하고, 막혀있어서 특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데 철거하러 가서는 우리가 싹 밀어내고 물론 한 번 청소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냄새가 한 번 남기 시작하면 여기 살기 좋은 줄 알고 계속 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 외벽에 보통은 기피제를 많이 써요. 이게 싸고, 과학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것도 별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더 센 걸 써야 하나 …… 원리는 여기서 살기 나쁘고 알 낳기 별로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오감으로 아 여기가 별로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해요. 기피제에 끈끈한 걸 같이 첨가하기 때문에 털에 묻으면 불쾌하게 느끼잖아요. 그 거도 넣고, 남겨놓은 집에다가도 넣어서 시각적으로도 놀라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빠려고 부리로 물어야 하잖아요. 그때 매운 맛을 나게 해서 놀라게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기억이 별로겠쬬 그럼 덜 오고 이렇게 해요 ……(C와의 인터뷰 중에서).

인터뷰이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 집과 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피제는 비둘기들에게 감각적으로 이 공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동반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비인간 비둘기에 대해 감각적으로 느끼는 혐오감과 공포감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비둘기에게 시각적, 촉각적, 미각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 비둘기의 정동적 감각은 상

호 “불쾌감”과 “공포감”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의 관계 변화는 동원 대상으로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와 자연에 대한 일상 통치성의 작동, 특히 바이오필리아의 정동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더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공간적으로도 비둘기 집 지어주기, 모이주기와 같은 도시 사회적 흐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비둘기의 물질적 울림에 의해 비둘기를 향한 도시 사회적 과정은 전환을 맞이한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에 이르는 비둘기에 대한 바이오포비아의 정동적 감각과 국가에 의한 정책적 폐기의 대상으로 비둘기는 도시 공간에 부유하게 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도시의 폐기된 비인간 행위자 비둘기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국가와 자연의 관계는 그 감응의 변화를 통해 전환되어 왔다. 특히 발전주의적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메가 이벤트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비인간 비둘기를 바라보던 국가와 사회는 비둘기에게 ‘자연’에 대한 친밀성의 정동감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사회적 동원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영역의 자연에 대한 동원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인간 비둘기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통해 변화한다. 즉, 개체 수의 증가와 도시 신진대사 간의 정합성, 각종 질병에 대한 공포감과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동감 변화를 일으켜 국가 정책의 변화와 도시 경관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가영역의 공간적 전략의 변화와도 그 맥을 함께했다.

국가와 비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새롭거나 전혀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들은 다분히 인간중심적으로 구성되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주목은 많은 부분 삭제되어 왔다. 한국의 도시 공간을 형성해낸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근대인'으로 바라보고 명명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동시에 “근대화 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하이브리드적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동원해왔다. 그러나 정작 인간이 만들고, 동원한 많은 비인간 들에 대해 인간은 그들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들인지조차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이와 같은 인간과 비인간의 비대칭적 관계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조국 근대화”의 프로젝트 속에서 비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에 대한 동원을 통해 이뤄왔다. 이와 같은 한국적 맥락성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는 다분히 비대칭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도시 공간’에 자리를 잡은 비인간 비둘기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동적 감각을 일으키는 물질주의적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정동은 인간이 느끼기에 더러움과 혐오, 기피의 대상으로 비인간들을 바라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담론적 경관의 변화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주의적 접근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일정부분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나친 인간중심의 담론 해석과 사회과학 논의에서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 특히 한국적 맥락 속에서 자연에 대한 동원과 구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세계를 영위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정동하는 비인간들에 대한 주목은 궁극적으로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비인간과 국가가 맺어온 관계의 성격을 통해 국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발

전주의 도시화와 이를 매개한 자연에 대한 동원과 폐기의 과정을 통해 발전주의 이후의 대안적 도시성의 발견과 도시 경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인식론적, 실천적 틀의 구성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5일

계재확정일: 2018년 3월 6일

최종원고접수일: 2018년 3월 8일

❖ Abstract

S. Korea’s Developmental Urbanization and Reshaping of ‘State-Nature’ Relations:
Affective Governance of Urban Pigeons

Kim, Jun Su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in S. Korea. In particular, I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pigeons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o-ecological debate about the material itself and the non-human. The non-human pigeon is mobilized in the mega-event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non-human as a resource works together with governance of nature on various levels. However, from the 1990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pigeon itself were associated with the spati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resulting in a new form of materialistic resonance. This material echo of the pigeons ultimately led to a change in the sense of social affective emotion for the pigeon, which eventually led to the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pigeon in 2009. In this study, we apply the concept of biophilia and biophobia to track the change process of nonhuman pigeons. This approach embraces the discussion of more-than-human geographies as a critique of the existing human-centered social sciences and also discussion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which does not involve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ation of the state and urban space through nonhuman and human relations and also through state and nature relations. In addition, the attention of asymmetrical relations between nonhuman and S. Korean’s

developmental state impli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developmental urbanization.

Keywords: non-human, pigeon, state-nature, developmental urbanization, affection

참고문헌

- 그레그(Gregg, M.)·시그워스(Seigworth, G. J.). 2015. 『정동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
의 마주침에서 생겨난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
리[2010. *The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 김남일·김대환·박운남·박지환·박헌우·정진문·최순규. 2013. 『형태로 찾아보는 우리
새 도감』. 지성사.
- 김지성·남옥현·임현수. 2016. 『인류세 (Anthropocene) 의 시점과 의미』. 《지질학회지》,
52권 2호, 163~171쪽.
- 남동하·이두표·구태화. 2003. 『비둘기 깃털을 이용한 납 오염 모니터링』. 《한국환경
생태학회지》, 16권 3호, 233~238쪽.
-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üller-Mahn)·황진태. 2014. 『지리학적 위험연구의 관점들』.
《공간과사회》, 24권 2호, 287~302쪽.
- 라투르, 브뤼노.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대칭적 인류학을 위하
여』. 홍철기 옮김. 갈무리[2012.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ard University
Press].
- 라투르, 브뤼노(Bruno Latour) 외.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
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옮김. 이음[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마모루, 이토(伊藤守). 2016.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김미정 옮김. 갈무
리[2013. 『情動の権力—メディアと共振する身体』].
- 박배균. 2017. 『발전주의 도시화의 대안으로서 포스트 영토주의 도시성의 모색』. 《한
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쪽.
- 박배균·이승욱·조성찬. 2017.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알트.
박배균·장세훈·김동완. 2014. 『산업경관의 탄생: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알트.
- 박배균·황진태.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
개발의 탄생』. 동녘.
- 방희경·박혜영. 2018. 『탈북민 프로그램과 정동(affect)의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87권, 135~171쪽.
- 서울시. 2016.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결과 보고』.
-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정치지리학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권 3호, 305~323쪽.
- 왕혜숙·김준수. 2015. 『한국의 발전국가와 정체성의 정치: 박정희 시기 재일교포 기
업인들의 민족주의 담론과 인정 투쟁』. 《경제와사회》, 107권, 244~286쪽.
- 윌슨, 에드워드(E. O. Wilson). 2010. 『바이오필리아: 우리 유전자에는 생명 사랑의 본

- 능이 새겨져 있다. 안소연 옮김. 사이언스북스[1984. *Biophilia*. Massachusetts].
- 유정칠. 2009. 『유해집비둘기 관리방안』.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윤상우. 2006.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 변동과 세계체제적 조건, 1960~1990』. 《경제와사회》, 72권, 69~94쪽.
- 이상헌. 2001. 『물 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 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6. 『위험경관의 생산과 민주주의의 진화』. 《동향과전망》, 96권, 113~152쪽.
- 이상헌·김은혜·황진태·박배균. 2017. 『위험도시를 살다: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경관』. 알트.
- 이상호·이종천·박종혁·이유진·심규영·장희연·김명진. 2016. 『환경오염 지표종인 집비둘기의 생체조직 내 중금속 분포 특성』. 《환경영양평가》, 25권 6호, 502~513쪽.
- 장덕수·황진태. 2017. 『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통권 60호, 226~256쪽.
- 조희연. 2002.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철학》, 4권, 293~351쪽.
- 제습, 밥(B. Jessop).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유범상 옮김. 한울[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enn State Press].
- 진종현. 2009. 『경관연구의 환경론적 함의』. 《문화역사지리》, 21권 1호, 149~160쪽.
- _____.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권 4호, 557~574쪽.
- 최병두. 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 정의』. 한울.
- 한상진. 1998. 『왜 위험사회인가?』. 《계간사상》, 38권, 3~25쪽.
- 홍성태. 2003. 『근대화와 위험사회』. 《문화과학》, 35권, 54~74쪽.
- _____.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와 정연구》, 7권, 17~38쪽.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권 3호, 348~365쪽.
- Adler, F. R. and C. J. Tanner. 2013. *Urban ecosystems: ecological principles for the built enviro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gelo, H. and D. Wachsmuth. 2015. “Urbanizing urban political ecology: A critique

- of methodological city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9(1), pp. 16~27.
- Barua, M. 2014. “Circulating elephants: unpacking the geographies of a cosmopolitan anima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4), pp. 559~573.
- Bear, C. and S. Eden. 2011. “Thinking like a fish? Engaging with nonhuman difference through recreational angling.” *Environment and Planning D*, 29(2), pp. 336~352.
- Boyer, R. and J. R. Hollingsworth. 1997.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ner, N. 2004a. *New state space*.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b. “Urban governance and the production of new state spaces in Western Europe, 1960-2000.”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3), pp. 447~488.
- _____. 2013. “Theses on urbanization.” *Public Culture*, 25(1), pp. 85~114.
- Brenner, N. and C. Schmid. 2011. “Planetary urbanisation.” In *Urban constellations*. Jovis, pp. 10~13.
- Brenner, N., B. Jessop., M. Jones. and G. Macleod(eds.). 2008. *State/space: a reader*. John Wiley & Sons.
- Buller, H. 2008. “Safe from the wolf: biosecurity, biodiversity, and competing philosophies of natu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7), pp. 1583~1597.
- Choi, M. A. 2016.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1(5), pp. 613~632.
- Crutzen, P. J. 2006. “The anthropocene.” In *Earth System Science in the Anthropocene*. Berlin, Heidelberg: Springer, pp. 13~18.
- Darier, É. 1996. “Environmental governmentality: The case of Canada’s green plan.” *Environmental Politics*, 5(4), pp. 585~606.
- Gierlinger, S. 2015. “Food and feed supply and waste disposal in the industrialising city of Vienna (1830-1913): a special focus on urban nitrogen flows.”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5(2), pp. 317~327.
- Ginn, F. 2014. “Sticky lives: slugs, detachment and more than human ethics in the garde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4), pp. 532~544.
- Goldman, M. 2004. “Eco-governmentality and other transnational practices of a ‘green’ World Bank.” In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pp. 166~192.
- Hobson, K. 2007. “Political animals? On animals as subjects in an enlarged political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26(3), pp. 250~267.
- Jerolmack, C. 2013. *The global pige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kkonen, J. 2017. “Pollutants in Urbanized Area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Bird

- Populations.” In *Ecology and Conservation of Birds in Urban Environments*, pp. 227~250.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ipfer, S. and K. Goonewardena. 2014. “Henri Lefebvre and “colonization”: From re-interpretation to research.” In *Urban Revolution Now: Henri Lefebvre in Social Research and Architecture*, pp. 93~112.
- Kobrin, S. J. 1998.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pp. 361~386.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inklater, A. and J. MacMillan. 1995. “Boundaries in question.” In *Boundaries in Question. Frances Pinter*, pp. 1~16.
- Litteral, J. and E. Shochat. 2017. “The role of landscape-scale factors in shaping urban bird communities.” In *Ecology and Conservation of Birds in Urban Environments*, pp. 135~159.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Lorimer, J. 2007. “Nonhuman charisma.” *Environment and Planning D*, 25(5), pp. 911~932.
- McFarlane, C. 2011. “Assemblage and critical urbanism.” *City*, 15(2), pp. 204~224.
- Meffert, P. J. 2016. “Birds on urban wastelands.” In *Ecology and conservation of birds in urban environments. Springer*, pp. 399~412.
- Melles, S., S. Glenn. and K. Martin. 2003. “Urban bird diversity an landscape complexity: speciesenvironment associations along a multiscale habitat gradient.” *Conserv Ecol*, 7(1).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pp. 909~922.
- Müller-Mahn, D(eds). 2012.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apes*. Routledge.
- Nam, D. H. and D. P. Lee. 2006. “Reproductive effects of heavy metal accumulation on breeding feral pigeons(*Columba livi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66(2-3), pp. 682~687.
- Newman, D. and A. Paasi.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pp. 186~207.
- Newman, P. W. 1999. “Sustainability and cities: extending the metabolism model.”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4(4), pp. 219~226.
- Philo, C. and C. Wilbert(eds.). 2000.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Psychology Press.
- Przybylska, K., A. Haidt., Ł. Myczko., A. Ekner-Grzyb., Z. M. Rosin., Z. Kwiecieński.,

- …… and M. Tobółka. 2012. “Local and landscape-level factors affecting the density and distribution of the Feral Pigeon *Columba livia* var. *domestica* in an urban environment.” *Acta Ornithologica*, 47(1), pp. 37~45.
- Pyyhtinen, O. 2016. *More-than-human sociology: A new sociological imagination*. Springer.
- Ruggie, J. G.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pp. 139~174.
- Sacchi, R., A. Gentilli, E. Razzetti. and F. Barbieri. 2002. “Effects of building features on density and flock distribution of feral pigeons *Columba livia* var. *domestica* in an urban environment.” *Canadian Journal of Zoology*, 80(1), pp. 48~54.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UP Archive.
- Schmid, C. 2014. “Travelling warrior and complete urbanization in Switzerland.” In *Implosions/explosions: towards a study of planetary urbanization*, pp. 90~102. Jovis.
- Smith, N. 1995. “Remaking scal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prenational and postnational Europe.” In *Competitive European Peripheries*, pp. 59~74. Springer.
- Sol, D., D. M. Santos., J. Garcia. and M. Cuadrado. 1998. “Competition for food in urban pigeons: the cost of being juvenile.” *Condor*, pp. 298~304.
- Strohbach, M., D Haase. and N. Kabisch. 2009. “Birds and the city: urban biodiversity, land use, and socioeconomics.” *Ecology and Society*, 14(2), p. 31.
- Sum, N. L. and M. Perkmann. 2002.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cross-border regions*, Palgrave.
- Swyngedouw, E. 1997. “Power, nature, and the city. The conquest of water and the political ecology of urbanization in Guayaquil, Ecuador: 1880-1990.” *Environment and planning A*, 29(2), pp. 311~332.
- _____. 2006. “Circulations and metabolisms: (hybrid) natures and (cyborg) cities.” *Science as culture*, 15(2), pp. 105~121.
- Symes, C. T., K. Roller., C. Howes., G. Lockwood. and B. J. van Rensburg. 2017. “Grassland to urban forest in 150 years: avifaunal response in an African metropolis.” In *Ecology and Conservation of Birds in Urban Environments*. pp. 309~341.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Thrift, N. 1997. “The still point: resistance, expressive embodiment and dance.” In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pp. 124~151.
- Ulrich, R. S. 1993. “Biophilia, biophobia and natural landscape.” *The biophilia hypothesis*, 7, pp.73~137.
- Whatmore, S. J.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4), pp. 600~609.
- _____. 2013. “Earthly powers and affective environments: An ontological politics of

flood risk.” *Theory, Culture & Society*, 30(7-8), pp. 33~50.

Whitehead, M., R. Jones. and M. Jones.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기사>

《경향신문》. 1975.6.20. “비둘기 경주로 더 없는 낭만을”.

_____. 1986.2.13. “비둘기에 먹이 주는 로터리사람들”.

_____. 1988.6.4. “한강 시민공원 비둘기 집 설치”.

_____. 1988.8.2. “흰 비둘기 88개막 때 첫산”.

_____. 1988.9.21. “개회식 비둘기에도 메달시상”.

_____. 1992.7.24. “도심 공원 비둘기 배고파 [동남행각]”.

_____. 1996.4.28. “경희궁 비둘기 애처로운 죽음”.

_____. 1999.4.6. “비둘기 ‘의문의 폐죽음’ 공항터미널 일대 3일째”.

_____. 1999.12.13. “원각사탑 [비둘기] 막아라”.

《동아일보》. 1972.12.2. “비둘기 길러 정서순화 서울 경희궁”.

_____. 1983.4.15. “오수, 아주 경기 앞두고 새 레저로 각광 비둘기 경주”.

_____. 1988.8.3. “강변 비둘기집 설치”.

_____. 1993.1.19. “비둘기 배설물 처리골치”.

_____. 1993.3.18. “문래동 어린이 놀이터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

_____. 1994.6.14. “비둘기떼를 쫓아라 탐골공원 불청객 퇴치 작전”.

_____. 1996.9.4. “비둘기를 죽이는 도시 부끄러운 서울”.

《매일경제》. 1978.11.4. “이색취미 비둘기 레이스”.

_____. 1988.5.9. “오륜기념 국제 친선 비둘기 레이스”.

_____. 1995.10.26. “참새보다 못한 비둘기”.

《한겨레》. 1994.10.26. “탐골공원 10층 석탑 훼손”.

_____. 2013.9.1. “그 많던 집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웹사이트>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334406?tr_code=open

한국애구회협회 홈페이지. <http://www.racingpigeon.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